

2025 지방직/서울시 9급

이유진 국어

완전 적중!



문제 유형 적중!

지방직 국어 1번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 표현의 정확성
 - ㉠ 의미에 맞는 정확한 단어 쓰기.
 - ㉡ 부적절한 피·사동 표현에 유의함.
-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 삼가기
 - ㉢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는 문장을 사용함.
- 대등한 것끼리 접속
 - ㉣ ‘-고’, ‘-(으)며’, ‘와/과’ 등으로 접속되는 말에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함.

- ①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급할 예정이다.”를 ㉠에 따라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수할 예정이다.”로 수정한다.
- ②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시켜야 한다.”를 ㉡에 따라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 ③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를 ㉢에 따라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로 수정한다.
- ④ “사업 전체 목표 수립과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를 ㉣에 따라 “사업 전체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로 수정한다.

2025 화제의 모의고사 4주니 1번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 정확한 용어 선택하기
 - ㉠ 문맥에 맞는 정확한 어휘를 사용할 것.
- 대등한 것끼리 접속
 - ㉡ ‘-고’, ‘-며’, ‘-와’, ‘-과’ 등으로 접속되는 말에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함.
- 어문 규범 지키기
 - ㉢ 연월일 뒤에 마침표를 쓸 때는 ‘일’을 나타내는 숫자 뒤에도 마침표를 찍음.
- 외국어 번역 투 삼가기
 - ㉣ ‘~에 있어서’는 우리말에는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 과도한 피동 표현이므로 ‘~에 대하여’, ‘~에서’ 등으로 수정해야 함.

- ① “응시자 여러분들은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를 ㉠에 따라 “응시자 여러분들은 기간 안에 서류를 접수해 주십시오.”로 수정한다.
- ② “주권을 수호하고 평등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를 ㉡에 따라 “주권 수호와 평등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로 수정한다.
- ③ “20〇〇. 1. 4일 이후 통합 기관을 추가할 예정이다.”를 ㉢에 따라 “20〇〇. 1. 4. 이후 통합 기관을 추가할 예정이다.”로 수정한다.
- ④ “이는 품질에 있어서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것이다.”를 ㉣에 따라 “이는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것이다.”로 수정한다.

문제 유형 적중!

지방직 국어 1번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표현의 정확성
 - ㉠ 의미에 맞는 정확한 단어 쓰기.
 - ㉡ 부적절한 피·사동 표현에 유의함.
 -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 삼가기
 - ㉢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는 문장을 사용함.
 - 대등한 것끼리 접속
 - ㉣ ‘-고’, ‘-(으)며’, ‘와/과’ 등으로 접속되는 말에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함.

- ①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급할 예정이다.”를 ㉠에 따라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수할 예정이다.”로 수정한다.
- ②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시켜야 한다.”를 ㉡에 따라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 ③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를 ㉢에 따라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로 수정한다.
- ④ “사업 전체 목표 수립과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를 ㉣에 따라 “사업 전체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로 수정한다.

2025 화제의 모의고사 4주L2 1번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명료한 수식어구 사용
 - ㉠ 수식어구가 무엇을 수식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함.
 - 외국어 번역 투 삼가기
 - ㉡ ‘~에 의해 ~되다’와 같은 어색한 피동 표현은 삼가야 함.
 - 어문 규범 지키기
 - ㉢ 모음으로 끝나거나 ‘ㄴ’ 받침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는 ‘-을’을 쓰고, 그 밖의 경우에는 ‘-를’을 씀.
 - 불필요한 사동 삼가기
 - ㉣ ‘-하다’로 표현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시키다’를 써서 표현하는 것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임.

- ① “3킬로그램 정도의 과일 바구니”를 ㉠에 따라 “과일 3킬로그램 정도를 담은 바구니”로 수정한다.
- ② “그 건물은 유명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다.”를 ㉡에 따라 “그 건물은 유명 건축가가 설계했다.”로 수정한다.
- ③ “우리 반은 전교에서 출석률이 가장 높았다.”를 ㉢에 따라 “우리 반은 전교에서 출석율이 가장 높았다.”로 수정한다.
- ④ “○○청은 통계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를 ㉣에 따라 “○○청은 통계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로 수정한다.

문제 유형 + 선지 적중!

지방직 국어 1번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 표현의 정확성
 - ㉠ 의미에 맞는 정확한 단어 쓰기.
 - ㉡ 부적절한 피·사동 표현에 유의함.
 -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 삼가기
 - ㉢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는 문장을 사용함.
 - 대등한 것끼리 접속
 - ㉣ ‘-고’, ‘-(으)며’, ‘와/과’ 등으로 접속되는 말에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함.

- ①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급할 예정이다.”를 ㉠에 따라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수할 예정이다.”로 수정한다.
- ②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시켜야 한다.”를 ㉡에 따라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 ③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를 ㉢에 따라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로 수정한다.
- ④ “사업 전체 목표 수립과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를 ㉣에 따라 “사업 전체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로 수정한다.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5회 2번

9.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 능동과 피동의 관계를 정확하게 사용함.
 -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 삼가기
 - ㉡ 중의적인 문장을 사용하지 않음.
 - 명료한 수식어구 사용
 - ㉢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함.
 - 대등한 구조를 보여 주는 표현 사용
 - ㉣ ‘-고’, ‘와/과’ 등으로 접속될 때에는 대등한 관계를 사용함.

- ① “이번 학생 회의에서 임원 ○○○명을 선출되었다.”를 ㉠에 따라 “이번 학생 회의에서 임원 ○○○명이 선출되었다.”로 수정한다.
- ② “교장은 교감과 교사들의 업무 효율성 증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를 ㉡에 따라 “교장은 교사들의 업무 효율성 증진에 관하여 교감과 논의하였다.”로 수정한다.

문제 유형 적중!

지방직 국어 1번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 표현의 정확성
 - ㉠ 의미에 맞는 정확한 단어 쓰기.
 - ㉡ 부적절한 피·사동 표현에 유의함.
-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 삼가기
 - ㉢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는 문장을 사용함.
- 대등한 것끼리 접속
 - ㉣ ‘-고’, ‘-(으)며’, ‘와/과’ 등으로 접속되는 말에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함.

- ①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급할 예정이다.”를 ㉠에 따라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수할 예정이다.”로 수정한다.
- ②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시켜야 한다.”를 ㉡에 따라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 ③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를 ㉢에 따라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로 수정한다.
- ④ “사업 전체 목표 수립과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를 ㉣에 따라 “사업 전체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로 수정한다.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66회 1번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함.
- 중복 오류 삼가기
 - ㉡ 중복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 명료한 수식어구 사용
 - ㉢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함.
- 대등한 구조를 보여 주는 표현 사용
 - ㉣ ‘-고’, ‘와/과’ 등으로 접속될 때에는 대등한 관계를 사용함.

- ① “그는 철수가 절대로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를 ㉠에 따라 “그는 철수에게 절대로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로 수정한다.
- ② “우리에게 휴대 전화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다.”를 ㉡에 따라 “우리에게 휴대 전화는 필수품이다.”로 수정한다.
- ③ “자살은 온전히 자율적 개인의 의지이다.”를 ㉢에 따라 “자살은 온전히 개인의 자율적 의지이다.”로 수정한다.
- ④ “모든 구성원이 따를 수 있는 법 제정과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를 ㉣에 따라 “모든 구성원이 따를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로 수정한다.

문제 유형 적중!

지방직 국어 1번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 표현의 정확성
 - ㉠ 의미에 맞는 정확한 단어 쓰기.
 - ㉡ 부적절한 피·사동 표현에 유의함.
 -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 삼가기
 - ㉢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는 문장을 사용함.
 - 대등한 것끼리 접속
 - ㉣ ‘-고’, ‘-(으)며’, ‘와/과’ 등으로 접속되는 말에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함.

- ①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급할 예정이다.”를 ㉠에 따라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수할 예정이다.”로 수정한다.
- ②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시켜야 한다.”를 ㉡에 따라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 ③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를 ㉢에 따라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로 수정한다.
- ④ “사업 전체 목표 수립과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를 ㉣에 따라 “사업 전체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로 수정한다.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72회 1번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 능동과 피동의 관계를 정확하게 사용함.
 - 대등한 구조를 보여 주는 표현 사용
 - ㉡ ‘-고’, ‘와/과’ 등으로 접속될 때에는 대등한 관계를 사용함.
 - 외국어 번역 투 삼가기
 - ㉢ ‘~에 있다’는 ‘~이다’로 바꾸어서 사용함.
 - 어문 규범 지키기
 - ㉣ ‘도구, 수단’을 나타낼 때는 ‘로써’를 쓰고, ‘자격’을 나타낼 때는 ‘로서’를 씀.

- ① “받아쓰기 대회에서 우승자가 발표되었다.”를 ㉠에 따라 “받아쓰기 대회에서 우승자를 발표되었다.”로 수정한다.
- ② “그 기업은 교육 강화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를 ㉡에 따라 “그 기업은 교육을 강화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로 수정한다.
- ③ “우리의 최종 목표는 조국 통일에 있다.”를 ㉢에 따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조국 통일이다.”로 수정한다.
- ④ “귀사가 직업 홍보관 운영에 협조해 주실 경우, 향토 기업으로써 지역 발전에 의미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를 ㉣에 따라 “귀사가 직업 홍보관 운영에 협조해 주실 경우, 향토 기업으로서 지역 발전에 의미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로 수정한다.

문제 유형 적중!

지방직 국어 1번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 표현의 정확성
 - ㉠ 의미에 맞는 정확한 단어 쓰기.
 - ㉡ 부적절한 피·사동 표현에 유의함.
 -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 삼가기
 - ㉢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는 문장을 사용함.
 - 대등한 것끼리 접속
 - ㉣ ‘-고’, ‘-(으)며’, ‘와/과’ 등으로 접속되는 말에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함.

- ①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급할 예정이다.”를 ㉠에 따라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수할 예정이다.”로 수정한다.
- ②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시켜야 한다.”를 ㉡에 따라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 ③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를 ㉢에 따라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로 수정한다.
- ④ “사업 전체 목표 수립과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를 ㉣에 따라 “사업 전체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로 수정한다.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99회 1번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 능동과 피동의 관계를 정확하게 사용함.
 -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 삼가기
 - ㉡ 중의적인 문장을 사용하지 않음.
 - 명료한 수식어구 사용
 - ㉢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함.
 - 대등한 구조를 보여 주는 표현 사용
 - ㉣ ‘-고’, ‘와/과’ 등으로 접속될 때에는 대등한 관계를 사용함.

- ① “이번 심사에서 장학생 ○○○명을 선발되었다.”를 ㉠에 따라 “이번 심사에서 장학생 ○○○명이 선발되었다.”로 수정한다.
- ② “주방장은 요리사들의 조리 속도 향상에 관하여 부주방장과 논의하였다.”를 ㉡에 따라 “주방장은 부주방장과 요리사들의 조리 속도 향상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로 수정한다.
- ③ “100그램 정도의 밀가루 봉지”를 ㉢에 따라 “밀가루를 100그램 정도 담은 봉지”로 수정한다.
- ④ “문서의 보안 강화와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를 ㉣에 따라 “문서의 보안을 강화하고,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지문 제재 적중!

지방직 국어 3번

3. 다음 중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단어는 두 가지 이상의 품사에 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밝다'의 경우 '날이 밝았다.'에서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라는 의미의 동사이지만, '햇살이 밝은 날'에서는 '불빛 따위가 환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이렇듯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것을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품사 통용은 동음이의 현상과 구별된다. 즉 품사 통용은 서로 관련된 두 의미가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인 반면, ㉠ **동음이의 현상**은 먹는 '배'와 타는 '배'가 구별되는 것과 같이 서로 무관한 두 의미가 우연히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 ① 그는 여러 문화를 비교적 관점에서 연구했다. / 삼촌은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곳에 산다.
- ② 내가 언니보다 키가 더 크다. / 이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마당의 풀이 잘 크다.
- ③ 오늘이 드디어 기다리던 시험일이다. / 친구는 국립 박물관에 오늘 갈 것이라 한다.
- ④ 나는 어제 산 모자를 쓰고 나갔다. / 형님은 시를 쓰고 누님은 그림을 그렸다.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20회 17번

17. 밑줄 친 단어의 품사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일 형태의 단어가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품사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품사 통용(通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달리기 시합에서 셋째로 들어오다."에서의 '셋째'는 수사이지만 "우리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신다."에서의 '셋째'는 수 관형사이다.

품사 통용을 하는 단어가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 판단하려면 예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사와 의존 명사로 통용하는 '만'의 경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지만,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또한 부사와 명사로 통용하는 '어제'는 용언을 직접 꾸미면 부사, 격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면 명사로 본다. 동사와 형용사로 통용하는 단어들은 그 의미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형으로 '-는'이나 '-다'와 결합할 수 있는지 적용해 보면 판단이 가능하다. 동사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과 결합하여 '내가 지금 먹는 빵'처럼 현재를 표현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는'과 결합할 수 없다. 또한, 동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ㄴ/는-'과 결합하여 '내가 집에 간다', '내가 지금 빵을 먹는다'처럼 활용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이 꽃이 예쁘다'처럼 쓸 수 없다.

(가)	㉠ 그는 내일 집에 <u>있는</u> 다고 했다.
	㉡ 나는 신이 <u>있</u> 다고 믿는다.
(나)	㉠ 날 <u>생각</u> 하는 건 너뿐이다.
	㉡ 네가 합격하길 <u>바라</u> 뿐이다.
(다)	㉠ <u>내일</u> 이 내 생일이다.
	㉡ 우리 <u>내일</u> 만나자.
(라)	㉠ 마라톤을 좋아하는 사람 <u>다섯</u> 이 대회에 참가했다.
	㉡ 마라톤을 좋아하는 <u>다섯</u> 사람이 대회에 참가했다.

지문 제재 + 선지 적중!

지방직 국어 3번

3. 다음 중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단어는 두 가지 이상의 품사에 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밝다'의 경우 '날이 밝았다.'에서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라는 의미의 동사이지만, '햇살이 밝은 날'에서는 '불빛 따위가 환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이렇듯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것을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품사 통용은 동음이의 현상과 구별된다. 즉 품사 통용은 서로 관련된 두 의미가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인 반면, ㉠ **동음이의 현상**은 먹는 '배'와 타는 '배'가 구별되는 것과 같이 서로 무관한 두 의미가 우연히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 ① 그는 여러 문화를 **비교적** 관점에서 연구했다. / 삼촌은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곳에 산다.
- ② 내가 언니보다 키가 더 **크다**. / 이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마당의 풀이 잘 **크다**.
- ③ **오늘이 드디어 기다리던 시험일이다**. / 친구는 국립 박물관에 **오늘** 갈 것이라 한다.
- ④ 나는 어제 산 모자를 **쓰고** 나갔다. / 형님은 시를 **쓰고** 누님은 그림을 그렸다.

2025 화제의 모의고사 4주니 14번

14.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일 형태의 단어가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품사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품사 통용(通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마라톤을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대회에 참가했다.”에서의 ‘다섯’은 뒤에 조사가 붙으므로 수사이지만 “마라톤을 좋아하는 다섯 사람이 대회에 참가했다.”에서의 ‘다섯’은 뒤의 체언을 수식하므로 관형사이다.

품사 통용을 하는 단어가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 판단하려면 예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사와 의존 명사로 통용하는 ‘뿐’은 조사일 때는 앞말에 붙여 쓰지만, 의존 명사일 때는 띄어 쓴다. 이때, ‘만큼’과 ‘대로’는 ‘뿐’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또한 부사와 명사로 통용하는 ‘어제’와 같은 시간 표현은 용언을 직접 꾸미면 부사,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면 명사로 본다. 의존 명사와 복수 접미사로 통용하는 ‘들’의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사물을 나열하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고 하나의 사물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복수 접미사이다.

- ① ‘굴을 일곱 조각 먹었다.’의 ‘일곱’은 관형사이다.
- ②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의 ‘대로’는 의존 명사이다.
- ③ ‘**오늘은** 기다리던 내 생일이다.’의 ‘오늘’은 명사이다.
- ④ ‘바구니에 배들과 사과들이 있다.’의 ‘들’은 의존 명사이다.

지방직 국어 3번

3. 다음 중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단어는 두 가지 이상의 품사에 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밝다’의 경우 ‘날이 밝았다.’에서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라는 의미의 동사이지만, ‘햇살이 밝은 날’에서는 ‘불빛 따위가 환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이렇듯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것을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품사 통용은 동음이의 현상과 구별된다. 즉 품사 통용은 서로 관련된 두 의미가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인 반면, ㉠ 동음이의 현상은 먹는 ‘배’와 타는 ‘배’가 구별되는 것과 같이 서로 무관한 두 의미가 우연히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 ① 그는 여러 문화를 비교적 관점에서 연구했다. / 삼촌은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곳에 산다.
- ② 내가 언니보다 키가 더 크다. / 이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마당의 풀이 잘 크다.
- ③ 오늘이 드디어 기다리던 시험일이다. / 친구는 국립 박물관에 오늘 갈 것이라 한다.
- ④ 나는 어제 산 모자를 쓰고 나갔다. / 형님은 시를 쓰고 누님은 그림을 그렸다.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23회 11~12번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로 다른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동의 관계라고 하고 이 단어들을 **동의어**라고 한다. 그런데 완전히 의미가 같은 동의어는 드물다. 중심적 의미는 같더라도 연상적 의미나 사회적 의미는 다를 수 있고, 모든 맥락에서 교체가 가능한 동의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의어들의 의미가 같다는 것은 중심적 의미가 같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이유로 동의어를 유의어라고 하기도 한다.

동의어는 유형에 따라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의 차이에 의한 동의어, 일상어와 전문어의 차이에 의한 동의어, 표준어와 방언의 차이에 의한 동의어, 직설적인 표현과 이를 피하기 위한 완곡어법에 의한 동의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동의어들이 서로 경쟁하며 일어나는 현상을 동의어의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첫째, 동시대에 공존하는 경우가 있다. ‘달걀’과 ‘계란’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차이에 의한 동의어인데 현대에서 공존하고 있다. 둘째, 한쪽은 살아남고 한쪽은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1,000’을 뜻하는 단어로 예전에는 ‘천’과 ‘즈믄’이 있었지만 중세 국어 이후 ‘즈믄’은 소멸하였다. 셋째, 동의 중복의 합성어가 생긴 경우가 있다. ‘뺨’과 ‘골(脣)’은 의미가 거의 같은 동의 관계인데 이들의 합성어인 ‘뺨골’이 동의 중복의 방법으로 생겨났다. 넷째, 의미의 범주가 바뀐 경우가 있다. ‘백’과 ‘온’은 예전에는 모두 ‘100’을 의미하는 수사이자 수 관형사였지만 ‘온’은 ‘전부, 모두’를 뜻하는 관형사로, 이 경우에는 의미의 범주뿐만 아니라 품사까지 바뀌었다.

문제 제재 적중!

지방직 국어 4번

4. <지침>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 침>—

- 서론은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필요성을 포함할 것.
- 본론은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2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2장의 하위 항목이 3장의 하위 항목과 서로 대응하도록 할 것.
-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순서대로 제시할 것.

—<개 요>—

- 제목: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현황과 그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1장 서론

1.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방송 산업의 정책 변화
2. [가]

2장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현황

1. [나]
2. 국내 친환경 방송 제작 관련 전문 인력 부재

3장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1. 국내 방송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제작 **지침의 마련**
2. [다]

4장 결론

1. [라]
2.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 실행의 단계적 평가 및 개선

- ① (가):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전략의 필요성
- ② (나): 국내 방송 산업 내 친환경 제작을 위한 **지침 부재**
- ③ (다): 국내 친환경 방송 제작 관련 전문 인력 채용의 제도화
- ④ (라): 친환경 방송 제작을 위한 세부 지침과 인력 채용 방안 제시

2025 화제의 모의고사 6주L2 8번

8. <지침>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 침>—

- 서론은 중심 소재의 개념 정의와 주요 실태를 1개의 장으로 작성할 것.
- 본론은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2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각 장의 하위 항목끼리 대응되도록 작성할 것.
-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1개의 장으로 작성할 것.

—<개 요>—

- 제목: AI 의존도 증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I. 서론

1. AI 의존도의 개념 정의
2. [㉠]

II. AI 의존도 증가의 문제점

1. [㉡]
2. 생성형 AI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III. AI 의존도 증가에 대한 해결 방안

1.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교육 및 훈련 강화
2. [㉢]

IV. 결론

1. [㉣]
2. AI 의존도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및 교육 강화

- ① ㉠: AI 의존도 증가에 따른 인간의 자율적 사고력 감소의 실태
- ② ㉡: 의사 결정이 AI에 의존됨에 따른 인간의 창의성 감소
- ③ ㉢: AI가 제공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공유하지 않도록 AI 활용 **지침 설정**
- ④ ㉣: AI와 인간의 균형 잡힌 공존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

문제 제재 적중!

지방직 국어 4번

4. <지침>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지 침> —

- 서론은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필요성을 포함할 것.
- 본론은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2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2장의 하위 항목이 3장의 하위 항목과 서로 대응하도록 할 것.
-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순서대로 제시할 것.

— <개 요> —

- 제목: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현황과 그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1장 서론

1.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방송 산업의 정책 변화
2. (가)

2장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현황

1. (나)
2. 국내 친환경 방송 제작 관련 **전문 인력 부재**

3장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1. 국내 방송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제작 지침의 마련
2. (다)

4장 결론

1. (라)
2.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 실행의 단계적 평가 및 개선

- ① (가):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전략의 필요성
- ② (나): 국내 방송 산업 내 친환경 제작을 위한 지침 부재
- ③ (다): 국내 친환경 방송 제작 관련 **전문 인력 채용의 제도화**
- ④ (라): 친환경 방송 제작을 위한 세부 지침과 인력 채용 방안 제시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39회 16번

16. <지침>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지 침> —

- 서론은 중심 소재의 개념 정의와 문제 제기를 1개의 장으로 작성할 것.
- 본론은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2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각 장의 하위 항목끼리 대응되도록 작성할 것.
-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1개의 장으로 작성할 것.

— <개 요> —

- 제목: 생활 체육 활성화의 장애 요인과 활성화 방안

I. 서론

1. 생활 체육의 정의
2. ㉠

II. 생활 체육 활성화의 장애 요인

1. ㉡
2. 지역 사회 내 생활 체육 시설 미비

III. 생활 체육 활성화 방안

1. 다양한 맞춤형 생활 체육 프로그램 개발
2. ㉢

IV. 결론

1. ㉣
2. 생활 체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 생활 체육 참여 문화 확산 방안

- ① ㉠: 현대 사회에서 운동 부족으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 ② ㉡: 생활 체육 프로그램의 부족
- ③ ㉢: 지역사회 내 생활 체육 시설 확충
- ④ ㉣: 체계적이고 지속적 지도를 위한 생활 체육 **전문 지도자 양성**

문제 유형 적중!

지방직 국어 4번

4. <지침>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지 침> —

- 서론은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필요성을 포함할 것.
- 본론은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2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2장의 하위 항목이 3장의 하위 항목과 서로 대응하도록 할 것.
-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순서대로 제시할 것.

— <개 요> —

- 제목: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현황과 그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1장 서론

1.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방송 산업의 정책 변화
2. (가)

2장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현황

1. (나)
2. 국내 친환경 방송 제작 관련 전문 인력 부재

3장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1. 국내 방송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제작 지침의 마련
2. (다)

4장 결론

1. (라)
2.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 실행의 단계적 평가 및 개선

- ① (가): 국내 방송 산업의 친환경 제작 전략의 필요성
- ② (나): 국내 방송 산업 내 친환경 제작을 위한 지침 부재
- ③ (다): 국내 친환경 방송 제작 관련 전문 인력 채용의 제도화
- ④ (라): 친환경 방송 제작을 위한 세부 지침과 인력 채용 방안 제시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27회 1번

1. <지침>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지 침> —

- 서론은 중심 소재와 관련된 실태와 문제 제기를 1개의 장으로 작성할 것.
- 본론은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2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각 장의 하위 항목끼리 대응되도록 작성할 것.
-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1개의 장으로 작성할 것.

— <개 요> —

- 제목: 어린이 비만의 원인과 해결 방안

I. 서론

1. (㉠)
2.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어린이 비만의 증가

II. 어린이 비만의 원인

1. (㉡)
2. 디지털 기기 의존으로 인한 신체 활동 감소

III. 어린이 비만의 해결 방안

1. 건강한 급식과 간식 제공을 위한 학교 및 정부의 노력
2. (㉢)

IV. 결론

1. (㉣)
2. 비만 예방 및 관리 성과의 정기적 점검과 개선

- ① ㉠: 어린이 비만을 증가 추세와 관련된 국내 통계 자료
- ② ㉡: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
- ③ ㉢: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과 야외 활동 참여 독려
- ④ ㉣: 국가 차원의 장기적 어린이 비만 예방 정책 마련

지방직 국어 5번

5. 다음 글의 ㉠ ~ ㉣ 중 문맥상 어색한 곳을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면역반응에는 '자연면역'과 '획득면역'이 있다. 먼저, 자연면역이란 외부 이물질에 대해 내 몸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된 저항 능력을 가리킨다. 자연면역에서는 항원과 항체 사이의 ㉠ 직접적인 일대일 반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들어온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한 항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면역은 세균과 같은 미생물 등을 외부 이물질로 인식하여 제거한다. 예컨대 코나 폐에는 점막조직이 발달해 있어 외부 이물질을 걸러 낸다. 세포 차원에서는 대식세포의 기능이 자연면역인데, 이 세포는 ㉡ 외부 미생물이 어떤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대상을 제거한다.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한 항체를 생성하는 면역반응을 획득면역이라고 한다. 획득면역에서는 자연면역과 달리 ㉢ 항원의 종류와 무관하게 특정 항원에 대해 여러 종류의 항체가 반응한다. 일례로 B림프구의 세포 표면에는 특정 항원을 인식하고 그 특정 항원에 결합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를 '항원 수용체'라고 한다. ㉣ 항원 수용체는 세포 표면에 형성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항원에 의해 자극된다. 이 수용체가 림프구 세포로부터 떨어져 나와 혈액 안으로 들어간 단백질 단위를 항체라고 부른다.

- ① ㉠: 직접적인 일대일 반응 관계가 존재한다
 ② ㉡: 특정한 외부 미생물에 유일하게 반응하며 그 외의 대상은 제거하지 않는다
 ③ ㉢: 특정 항체가 특정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한다
 ④ ㉣: 항원 수용체는 세포 내부에 형성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항체에 의해 자극된다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17회 9번

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외부 병원체에 대항하는 신체의 방어 체계를 면역 시스템이라고 한다. 신체에 내재된 면역 시스템은 우리 자신과 남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남으로 인식되는 외부 병원체에 대해서만 면역 반응이 유발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병원체에 대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병원체를 기억하지 않고 즉각 반응하는 ㉠ 선천성 면역과, 병원체가 특정 항원을 인식하여 병원체를 막는 ㉡ 후천성 면역으로 나뉜다.

선천성 면역은 병원체가 몸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단계에서부터 몸 안으로 이미 침투한 병원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작동한다. 피부, 소화기나 호흡기의 내벽을 덮은 점막이 병원체의 체내 침투를 저지하며, 땀, 눈물 등의 분비액은 체내에 침투하는 병원체의 성장을 억제한다. 그리고 병원체가 체내에 침투하면 백혈구가 이를 제거한다. 반면 후천성 면역은 특정한 항원에 특이성을 보이는 세포를 활성화해 지속적인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는 이질적 항원이 발견되면, 후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의 항원 수용체, 즉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여 항원과 관련한 병원체의 활동을 저지한다.

- ① ㉠은 ㉡보다 더 지속적인 면역 반응을 가능케 한다.
 ② ㉠과 ㉡은 모두 피부나 점막에서 병원체의 침투를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과 달리 ㉠이 작동하려면 '자기'와 '남'을 구분하는 능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④ ㉠과 달리 ㉡이 작동하려면 특정한 항원에 특이성을 보이는 세포의 역할이 필요하다.

문제 유형 + 지문 제재 적중!

지방직 국어 6번

6. (가) ~ (라)를 맥락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가) 픽셀 단위로 수치화된 이미지 데이터는 하나의 긴 데이터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된다. 초기 컴퓨터의 경우 흑백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는 하나의 픽셀에 대해 흑과 백이 0과 1로 표현되는 1비트로 저장되었다.
- (나) 높은 해상도의 구현은 데이터 저장 용량의 문제를 일으켰고, 용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도 함께 고안되었다. 이를 통해 고해상도의 이미지도 웹사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다)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미지를 디지털로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픽셀 단위로 수치화하여 저장하는 것이다.
- (라) 하지만 현재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픽셀에 여러 색상의 정보를 담게 되었다. 초기 색상 표현은 하나의 픽셀이 흑과 백의 1비트였으나, 최근에는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기 위해 픽셀 하나에 32비트까지 사용한다.

- ① (나) - (가) - (라) - (다)
- ② (나) - (다) - (가) - (라)
- ③ (다) - (가) - (라) - (나)
- ④ (다) - (라) - (가) - (나)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8회 7번

7. 다음 글에서 ㄱ ~ ㄴ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음성 인식 기술은 컴퓨터 같은 기계에 입력된 음성 언어를 인식하여 일련의 문자 언어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전처리, 음향 모델 적용, 그리고 언어 모델 적용의 3단계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 ㄱ. 특징 벡터 추출은 이렇게 검출한 음성 파형의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다. 음성 신호마다 발음 기관을 거쳐 나오면서 생기는 파형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파형을 단위 구간별로 나누어 여러 가지 특징을 수치화한 것이 특징 벡터이다.
- ㄴ. 전처리는 음성과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것이다. 음성 검출은 입력된 음성 신호에서 소음이나 잡음 같은 비음성 신호를 제거하고 음성 파형을 검출한다.
- ㄷ. 언어 모델 적용 역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언어 모델을 참조한다. 추출한 음향에 상응하는 동시에 어법에도 맞는 음소와 단어를 데이터로부터 얻어낸다.
- ㄹ. 음향 모델 적용은 미리 만들어 놓은 음향 모델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입력된 음성 신호의 특징 벡터에 상응하는 음향을 도출한다. 전처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음향 모델에 넣는 방식의 적용이 이루어진다.

- ① ㄴ-ㄱ-ㄹ-ㄷ
- ② ㄹ-ㄷ-ㄴ-ㄱ
- ③ ㄹ-ㄴ-ㄱ-ㄷ
- ④ ㄴ-ㄹ-ㄷ-ㄱ

지문 제재 적중!

지방직 국어 7번

[7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누어진 영웅 소설의 세계 구조에서 서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상계의 일이지만 인과론적 구도로는 천상계가 우위에 있다. 천상계의 의지나 그 대리자의 개입에 의해서 지상계의 서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천상계는 지상에서 ㉠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발생과 귀결을 지배하는 초월적 세계로서, 일시적으로 고난에 빠졌던 주인공이 세상에 창궐한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해 주는 근거로 작용한다. 지상의 혼란이나 세계 질서의 모순은 일시적인 것일 뿐 현실의 구체적 갈등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어서 초월적 세계가 이미 설계한 바에 따라 쉽사리 해소된다. 이런 모습의 세계 구조를 ‘이원적 세계상’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판소리계 소설의 세계상은 대체로 일원적이고 경험적이다. 판소리계 소설에는 초월적 세계가 지배적 장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현실의 경험적 인과 관계에 의해 서사가 전개된다. 예컨대 변학도의 횡포로 인한 춘향의 수난, 흥부의 가난과 고난, 심청과 심봉사의 불행, 유혹에 넘어간 토끼의 위기 탈출, 배비장의 욕망과 봉변, 장끼의 죽음 등은 초월적 세계의 의지나 그 대리자의 개입 없이 현실적 삶의 인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웅 소설은 이원적 세계상을 잘 보여 주는 문학적 갈래이다.
 - ② 판소리계 소설에서 서사의 인과 관계는 경험적 현실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다.
 - ③ 천상계의 대리자가 지상계의 서사를 결정하는 작품에서는 이원적 세계상이 발견된다.
 - ④ 영웅 소설에 비해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초월적 세계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40회 5번

[15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판소리 사설에서는 부정적 인물과 상황을 그리면서 그것을 ㉠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과 대조시켜 형상화한다. 이때 부정적 인물과 상황은 작가의 이상과 대비됨으로써 왜곡되며 희화화된다. 예컨대 「흥보가」는 놀보와 작가의 이상을 대조함으로써 그들의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실감 나게 비판한다. 반면 긍정적 인물인 (가) 흥보는 부정적 인물과 대비되며, ㉡ 작가의 이상이 투영된 인물로 나타난다.

풍자는 현실이 부정적 인물이나 상황에 의한 것임을 폭로하는 것으로, 부정적 대상에 대해 비꼬거나 웃으면서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희화화의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 방법은 ㉢ 해학에서도 사용된다. 이는 왜곡된 환경에서 고통받는 인물에 대한 동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풍자와 구별된다. 「흥보가」는 부정적 인물에 대한 풍자와 긍정적 인물에 대한 해학이 결들여진 양상을 보인다. 이 양상을 통한 희화화는 작가의 기준에서 볼 때, 상황이 너무 터무니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풍자는 대체로 ㉣ 아이러니(반어), 기지, 조롱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중 「흥보가」에는 관찰자의 관점에서 인지되는 상황의 아이러니가 사용되었다. 이 사설에서는 관찰자가 인물들의 운명을 지켜보는 동안 착한 사람은 못 살지만, 악한 사람은 잘 살고 있는 상황이 전개된다. 따라서 「흥보가」는 관찰자에게 놀보에게는 공격적인 웃음을, 흥보에게는 동정과 연민의 웃음을 유발하게 한다.

15.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판소리 사설 속 긍정적 인물은 작가의 이상과 대비되는 존재이다.
 - ② 희화화의 방법은 왜곡된 환경에서 고통받는 인물에 대한 동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 ③ 「흥보가」는 반어를 활용하여 현실이 부정적 인물이나 상황에 의한 것임을 폭로하고 있다.
 - ④ 관찰자는 「흥보가」에서 작가의 이상과 대비되는 인물을 통해 동정과 연민의 웃음을 짓는다.

지방직 국어 7번

[7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누어진 **영웅 소설**의 세계 구조에서 서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상계의 일이지만 인과론적 구도로는 천상계가 우위에 있다. 천상계의 의지나 그 대리자의 개입에 의해서 지상계의 서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천상계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발생과 귀결을 지배하는 초월적 세계로서, 일시적으로 고난에 빠졌던 주인공이 세상에 창궐한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해 주는 근거로 작용한다. 지상의 혼란이나 세계 질서의 모순은 일시적인 것일 뿐 현실의 구체적 갈등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어서 초월적 세계가 이미 설계한 바에 따라 쉽사리 해소된다. 이런 모습의 세계 구조를 ‘이원적 세계상’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판소리계 소설의 세계상은 대체로 일원적이고 경험적이다. 판소리계 소설에는 초월적 세계가 지배적 장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현실의 경험적 인과 관계에 의해 서사가 전개된다. 예컨대 변학도의 횡포로 인한 춘향의 수난, 흥부의 가난과 고난, 심청과 심봉사의 불행, 유혹에 넘어간 토끼의 위기 탈출, 배비장의 욕망과 봉변, 장끼의 죽음 등은 초월적 세계의 의지나 그 대리자의 개입 없이 현실적 삶의 인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웅 소설은 이원적 세계상을 잘 보여 주는 문학적 갈래이다.
- ② 판소리계 소설에서 서사의 인과 관계는 경험적 현실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다.
- ③ 천상계의 대리자가 지상계의 서사를 결정하는 작품에서는 이원적 세계상이 발견된다.
- ④ 영웅 소설에 비해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초월적 세계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90회 15번

15.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웅 서사 소설은 고소설과 근대 소설로 이어지며, 주인공의 정신적 성장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일반적으로 영웅 신화의 주인공들은 비범한 능력과 특별한 탄생 배경을 지니며, 성장 과정에서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영웅 서사의 핵심은 주인공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다.

특히 영웅 서사 소설은 입사담의 구조를 따라 진행된다. ‘입사’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주인공이 통과의를 거치며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이 과정은 보통 ‘분리 → 전이 → 결합’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주인공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낯선 공간으로 이동하며, 이후 시험과 시련을 겪은 전이 단계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통과의를 마친 주인공은 사회에 복귀하여 성숙한 존재로 인정받는다.

영웅 서사 소설은 신화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으며, 이야기 속 시련은 인간 삶의 주기와 깊이 연관된다. 이를 통해 영웅은 자아를 실현하는 존재로 형상화되며, 운명을 개척하는 방식에 따라 사회적 태도가 달라진다. 고전 소설에서도 남성과 여성 영웅의 특징이 구별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전의 홍길동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로 운명을 개척하는 반면, 바리공주의 바리공주는 희생과 구원을 통해 현실에 순응하며 이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 ① 영웅 신화의 모든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 ② 영웅 서사 소설은 신화에서 시작하여 근대 소설로까지 이어진다.
- ③ 영웅 서사 소설의 주인공은 시험과 시련을 겪은 후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난다.
- ④ 홍길동과 바리공주는 성별이 달랐음에도 운명을 개척하는 방식이 같았다.

지방직 국어 7번

[7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누어진 영웅 소설의 세계 구조에서 서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상계의 일이지만 인과론적 구도로는 천상계가 우위에 있다. 천상계의 의지나 그 대리자의 개입에 의해서 지상계의 서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천상계는 지상에서 ㉠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발생과 귀결을 지배하는 초월적 세계로서, 일시적으로 고난에 빠졌던 주인공이 세상에 창궐한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해 주는 근거로 작용한다. 지상의 혼란이나 세계 질서의 모순은 일시적인 것일 뿐 현실의 구체적 갈등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어서 초월적 세계가 이미 설계한 바에 따라 쉽사리 해소된다. 이런 모습의 세계 구조를 ‘이원적 세계상’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판소리계 소설의 세계상은 대체로 일원적이고 경험적이다. 판소리계 소설에는 초월적 세계가 지배적 장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현실의 경험적 인과 관계에 의해 서사가 전개된다. 예컨대 변학도의 횡포로 인한 춘향의 수난, 흥부의 가난과 고난, 심청과 심봉사의 불행, 유혹에 넘어간 토끼의 위기 탈출, 배비장의 욕망과 봉변, 장끼의 죽음 등은 초월적 세계의 의지나 그 대리자의 개입 없이 현실적 삶의 인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웅 소설은 이원적 세계상을 잘 보여 주는 문학적 갈래이다.
- ② 판소리계 소설에서 서사의 인과 관계는 경험적 현실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다.
- ③ 천상계의 대리자가 지상계의 서사를 결정하는 작품에서는 이원적 세계상이 발견된다.
- ④ 영웅 소설에 비해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초월적 세계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2025 화제의 모의고사 2주니 15번

15. 다음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은 같은 소설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인물의 성격이다. 고전 소설 주인공의 성격은 대체로 상투적이다. 이들은 영웅적 인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착하고 슬기로우며 용맹하면서 잘생긴 이 인물이 여러 작품에 등장한다. 또한 그들은 평면적 성격을 지녔는데, 그들은 개과천선을 모르는 악인처럼 처음 주어진 성격이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현대 소설 속 인물들은 대부분 평범하다. 그들은 결점이 많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개성적 성격을 지녔다.

구성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고전 소설의 경우, 사건 전개는 우연성이 강하며 초자연적인 요소에 의존하여 실제보다 더 극적이다. 하지만 현대 소설은 실제로 있을 법하다고 느끼게 하는 개연성을 매우 중시한다. 따라서 사건 전개 과정 중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사실적이고 인과 관계도 분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형상화하는 주제의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다. 조선 시대에 창작된 소설은 당대의 가장 상식적인 윤리였던 충효와 정절을 절대적 가치로 존중한다. 이처럼 고전 소설은 관습적 도덕관을 따른다. 반면 현대 소설은 관습적 제도와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관한 문제를 실존적으로 탐구한다. 다시 말하자면, 현대 소설은 문제적 인물과 상황을 통해 인간이나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그 시대의 아픔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현대 소설에서 리얼리즘이 중심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 ① 고전 소설의 주인공들은 착하고 슬기로우며 개성적 성격을 지녔다.
- ② 고전 소설 속의 영웅적 인물은 악인과 달리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 ③ 현대 소설의 사건 전개는 고전 소설에 비해 우연의 정도가 약하다.
- ④ 고전 소설에서는 당대의 상식적 윤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문제 유형 + 선지 적중!

지방직 국어 8번

[7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누어진 영웅 소설의 세계 구조에서 서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상계의 일이지만 인과론적 구도로는 천상계가 우위에 있다. 천상계의 의지나 그 대리자의 개입에 의해서 지상계의 서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천상계는 지상에서 ㉠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발생과 귀결을 지배하는 초월적 세계로서,

8. 윗글의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언니는 뿌얇게 일어나는 물보라에 손을 대었다.
 - ② 그는 가까스로 일어나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 ③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싸움이 일어나는 동안 그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68회 10번

실제로 판들은 해령을 따라 새로운 해양 지각을 형성하는 식으로 이동한다. 이때 대륙판과 해양판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지대에서 판이 가라앉는 섭입대가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산맥이 솟아오르고 깊은 해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해령을 따라 이동하는 판들의 경계에서는 판들이 서로 밀치고 벌어지거나 혹은 엇갈려 지나가게 되는데, 이에 해당 지점에서 지진 및 화산 활동이 ㉠ 일어나는 빈도가 잦아지게 된다.

10.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다.
 - ② 의견이 상반되는 두 사람 간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 ③ 꺼져 가던 불꽃이 다시 일어나는 중이다.
 - ④ 황사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특정할 수 없다.

문제 유형 적중!

지방직 국어 9번

9.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 영희가 친구 혹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영희는 커피를 마셨다.
- 영희는 친구 혹은 선배를 만났다.
- 영희는 커피를 마신 적이 없다.

- ① 영희는 선배를 만났다.
- ② 영희는 친구를 만났다.
- ③ 영희는 선생님을 만났다.
- ④ 영희는 선배와 선생님을 모두 만났다.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2회 20번

20.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을 모두 고르면?

- (가) 그는 땅콩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 그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 따라서 그는 땅콩과 우유를 함께 먹었다.
- (나) 아침 일찍 일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침 식사를 한다. 따라서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 (다) 참석자 수가 적거나 전문가가 섭외되지 않으면 행사는 취소된다. 비가 오면 참석자 수가 적고, 눈이 오면 전문가가 섭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사가 취소되지 않으면 비와 눈이 오지 않는다.
- (라) 그녀는 피곤하면 커피를 마신다. 그녀는 커피를 마실 때 쿠키를 함께 먹거나, 우유를 섞어 마신다. 따라서 그녀가 피곤하고 우유를 마시지 않았다면, 그녀는 쿠키를 먹었다.

- ① (가), (나)
- ② (나), (라)
- ③ (가), (다), (라)
- ④ (다), (라)

문제 유형 적중!

지방직 국어 9번

9.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 영희가 친구 혹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영희는 커피를 마셨다.
- 영희는 친구 혹은 선배를 만났다.
- 영희는 커피를 마신 적이 없다.

- ① 영희는 선배를 만났다.
- ② 영희는 친구를 만났다.
- ③ 영희는 선생님을 만났다.
- ④ 영희는 선배와 선생님을 모두 만났다.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13회 20번

20. 다음 진술들이 참일 때, 학생 A~E 중 청소를 하는 인원은 총 몇 명일까?

- ㉠ C는 청소를 하지 않는다.
- ㉡ D가 청소를 하지 않으면 B도 청소를 하지 않는다.
- ㉢ C가 청소를 하거나 D가 청소를 하지 않는다.
- ㉣ E가 청소를 하는 경우에만 A가 청소를 한다.

- ① 2명
- ② 3명
- ③ 4명
- ④ 알 수 없음

문제 유형 적중!

지방직 국어 9번

9.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 영희가 친구 혹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영희는 커피를 마셨다.
- 영희는 친구 혹은 선배를 만났다.
- 영희는 커피를 마신 적이 없다.

- ① 영희는 선배를 만났다.
- ② 영희는 친구를 만났다.
- ③ 영희는 선생님을 만났다.
- ④ 영희는 선배와 선생님을 모두 만났다.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54회 5번

5. 다음 글의 내용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만일 나연이 부산 영화제에 참석한다면 서울 시상식에는 불참할 것이다. 만일 나연이 부산 영화제에 불참한다면, 건우를 만나지 못하거나 지은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연이 건우를 만난다면, 서울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나연은 서울 시상식에 참석한다.

- ① 나연은 건우를 만나지 않는다.
- ② 나연은 지은을 만나지 않는다.
- ③ 나연은 부산 영화제에 참석한다.
- ④ 나연은 부산 영화제에 불참하고 건우를 만난다.

지방직 국어 10번

[10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광수와 김동인은 한국 근대 문학 초기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이 둘의 작품은 표준어와 사투리의 사용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이광수의 대표작 『무정』에서는 작중 배경과 등장인물의 출신지가 서울이 아닌데도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표준어로 되어 있다. 반면 김동인의 대표작 『배따라기』에서 인물들의 대화는 출신지와 작중 배경에 ㉠ 맞는 사투리로 이루어진다. 작품의 리얼리티를 얼마나 잘 구현했는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무정』보다 『배따라기』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광수의 『무정』을 리얼리티의 구현 정도를 기준으로 낮잡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지방의 사투리를 통일하는 것은 중요한 화두였다. 이로 인해 표준어와 사투리의 위계가 공고해졌다. 당대의 지식인들은 표준어가 교양, 문화, 지식, 과학, 공적 영역 등의 근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투리는 야만, 비문화, 무지, 비과학, 사적 영역 등의 전근대적인 가치를 ㉡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광수가 계몽주의의 신봉자였음을 ㉢ 떠올리면, 그가 『무정』에서 표준어를 사용한 것은 근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이처럼 표준어의 사용은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이는 현대 문학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경리의 『토지』에서 대부분의 인물들은 경상도나 함경도 사투리를 사용한다. 하지만 주인공 '서희'는 사투리를 구사하지 않는다. 이는 작품의 리얼리티 형성에 방해가 되지만 해당 인물의 고고함과 차가움을 드러내는 데에 더할 수 없이 적절한 기능을 한다. 『토지』에 사용된 표준어는 인물의 성격을 ㉣ 뚜렷하게 보여 주는 효과를 지닌다.

10.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따라기』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작품의 리얼리티를 확보하였다.
- ② 『무정』에는 근대적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 ③ 『토지』는 '서희'의 사투리 사용을 통해 작품의 리얼리티를 구현하였다.
- ④ 작품의 리얼리티를 기준으로 할 때, 『무정』이 『배따라기』보다 더 뛰어나다.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30회 9번

9. 다음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 연애 소설의 내용은 주로 남녀 주인공이 결연 장애로 인한 갈등을 겪다가, 이를 극복하고 인연을 맺거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국을 맞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연애 소설에서 여자 주인공이 장애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결연 장애에 부딪힌 근대 이전 소설의 여주인공들은 연적이나 연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상황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준다. 적극적 대처나 극단적 선택을 하긴 하지만, 이때에도 자신의 운명을 탓할 뿐이다. 이는 갈등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규범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남주인공들의 태도와 다르다. 이는 당대의 보편적 사회 규범인 유교적 가부장제가 작용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는 『주생전』의 여주인공 '선화'와 '배도'는 갈등 상황에 대한 나름의 반응을 보여 주지만, 사회 규범을 넘어서지 않는다.

근대로 이행하면서, 사회 규범을 넘어서려는 여자 주인공들이 나타난다. 그녀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사회 규범에 의문을 품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즉 근대적 여성상이 등장한 것이다. 『무정』에서 '영채'와 '선형'은 사회 규범을 따르지 않고, 주체적인 사고를 한 후 자신의 삶을 결정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각성은 자유연애의 가치를 지향하는 남주인공 '형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은 가부장적 사회 규범을 반성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즉 그녀들도 사회 규범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아니다.

- ① 우리나라의 연애 소설은 주로 극복하지 못한 장애로 인한 파국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는 내용이다.
- ② 근대 이전의 여주인공들은 남주인공들과 달리 사회 규범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지 않는다.
- ③ 『주생전』의 여주인공들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고 갈등 상황에 대한 나름의 반응을 보인다.
- ④ 근대로 이행하면서 여주인공들은 사회 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이다.

지방직 국어 10번

[10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광수와 김동인은 한국 근대 문학 초기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이 둘의 작품은 표준어와 사투리의 사용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이광수의 대표작 「무정」에서는 작중 배경과 등장인물의 출신지가 서울이 아닌데도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표준어로 되어 있다. 반면 김동인의 대표작 「배따라기」에서 인물들의 대화는 출신지와 작중 배경에 ㉠ 맞는 사투리로 이루어진다. 작품의 리얼리티를 얼마나 잘 구현했는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무정」보다 「배따라기」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광수의 「무정」을 리얼리티의 구현 정도를 기준으로 낮잡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지방의 사투리를 통일하는 것은 중요한 화두였다. 이로 인해 표준어와 사투리의 위계가 공고해졌다. 당대의 지식인들은 표준어가 교양, 문화, 지식, 과학, 공적 영역 등의 근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투리는 야만, 비문화, 무지, 비과학, 사적 영역 등의 전근대적인 가치를 ㉡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광수가 계몽주의의 신봉자였음을 ㉢ 떠올리면, 그가 「무정」에서 표준어를 사용한 것은 근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이처럼 표준어의 사용은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이는 현대 문학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경리의 「토지」에서 대부분의 인물들은 경상도나 함경도 사투리를 사용한다. 하지만 주인공 '서희'는 사투리를 구사하지 않는다. 이는 작품의 리얼리티 형성에 방해가 되지만 해당 인물의 고고함과 차가움을 드러내는 데에 더할 수 없이 적절한 기능을 한다. 「토지」에 사용된 표준어는 인물의 성격을 ㉣ 뚜렷하게 보여 주는 효과를 지닌다.

10.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따라기」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작품의 리얼리티를 확보하였다.
- ② 「무정」에는 근대적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 ③ 「토지」는 '서희'의 사투리 사용을 통해 작품의 리얼리티를 구현하였다.
- ④ 작품의 리얼리티를 기준으로 할 때, 「무정」이 「배따라기」보다 더 뛰어나다.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87회 11번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구의 자연주의 문학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김동인은 근대문학에서 단편소설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유머, 위트, 역설 등을 단일한 구성 속에 도입하는 기법을 선보이는 한편, 구어체 사용, 과거시제 서술 등 당시로서는 낯설고 참신한 문장의 혁신을 이루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배따라기」는 인물의 내면 심리 탐구에 유리한 1인칭 서술자가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과거시제를 사용하여 현재의 서술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구조를 통해 기존의 단순 연대기적 서술에서 벗어난 서사구조를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며 웃음을 금할 수 없다.”와 같은 현재 시점의 서술과 과거의 사건 묘사가 교차되며 복합적인 시간 구성을 보여 준다. 또한 곳곳에 배치된 유머와 위트는 “배따라기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마치 내 가슴속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에서처럼, 감정을 과장되고 재치 있게 표현하는 데 동원된다. 또한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를 미워”하는 주인공의 복잡한 내면세계와 갈등을 섬세하게 ㉠ 잡아 냄으로써, 작가는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시도하는 서구적 자연주의의 면모를 잘 보여 주고 있다.

1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따라기」는 3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서술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배따라기」는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는 복합적 시간 구성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
- ③ 「배따라기」는 사실주의적 묘사를 통해 당대의 사회 현실을 세밀하게 재현하고 있다.
- ④ 「배따라기」는 극적인 사건 전개와 반전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선지 적중!

지방직 국어 11번

이처럼 표준어의 사용은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이는 현대 문학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경리의 『토지』에서 대부분의 인물들은 경상도나 함경도 사투리를 사용한다. 하지만 주인공 '서희'는 사투리를 구사하지 않는다. 이는 작품의 리얼리티 형성에 방해가 되지만 해당 인물의 고고함과 차가움을 드러내는 데에 더할 수 없이 적절한 기능을 한다. 『토지』에 사용된 표준어는 인물의 성격을 ㉠ 뚜렷하게 보여 주는 효과를 지닌다.

11. 윗글의 ㉠ ~ ㉢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영합(迎合)하는
- ② ㉡: 표상(表象)하는
- ③ ㉢: 상기(想起)하면
- ④ ㉠: 분명(分明)하게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66회 7번

인본주의 신화를 바탕으로 ㉠ 참조된 그리스 신전은 지붕의 수평선을 통해 하늘을 우러르기보다 땅을 굽어보겠다는 의지를 ㉡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동양의 지붕은 은근하면서도 다양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을 별개가 아닌 상호 보완의 개념으로 보려는 철학이 반영된 결과이다. 가령, 한국의 지붕은 하늘을 우러르는 동시에 땅을 굽어보는 두 가지 모습이 ㉢ 더불어 나타나고 있다. 용마루 선을 따라 수평선이 형성됨과 동시에 처마 끝이 들어 올려지면서 하늘을 향한 의지가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기운이 ㉣ 어우러지면서 한국의 지붕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동·서양 모두 시대에 따라 지붕 양식에 변화가 있다.
- ② 동·서양의 지붕 모두 신과 인간의 합일을 추구한다.
- ③ 동양의 지붕은 서양의 지붕과 달리 곡선 위주로 건축되었다.
- ④ 동·서양의 지붕에는 각 문화권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7. ㉠ ~ ㉢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창안된
- ② ㉡: 분명히
- ③ ㉢: 함께
- ④ ㉢: 조화되면서

지방직 국어 12번

[12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한다. 의식주 같은 기본 생활에 더해 문화생활과 사회 활동도 소비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소비되는 것을 흔히 '상품'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재화'라고 해야 하는데, 재화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고 상품은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재화는 인류 역사상 늘 있었지만, 상품은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 출현하였다.

냉전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다. "자본주의에서는 상인이 최고이고, 사회주의에서는 공직자가 최고이다."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기에 ㉠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상인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으며, 사회주의는 관료제의 폐해로 국가 기관이 부패해서 고위 관료라든가 고급 당원이 배불리 먹고산다는 의미이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볼 때 이 말은 사실에 가깝다.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상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중세의 상인들이 물건을 시장에 팔아 이윤을 얻기 위해 수공업자들을 조직하여 그들에게 자본과 도구를 빌려주고 물건을 대신 생산하게 한 데에서 자본주의가 출발하였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 상품에 기초한 사회로, 상품은 그것이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을 전제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상품도 존재할 수 없다. 목수가 ㉢ 집에서 쓰기 위해 만든 의자와 시장에 팔기 위해 만든 의자는 동일한 의자임에도 재화와 상품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다르다.

이와 같이 상품에는 생산과 유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유통을 맡은 사람이 바로 상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상인이 최고이다."라는 말은 만드는데 비해서 파는 이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뜻이다. 자본주의화가 진행될수록 전자와 후자 사이의 차이는 더 커진다.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갈수록 단순해지고 상품의 대량생산은 쉬워지는 반면, 유통의 경우 상품과 최종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므로 생산에 비해 우회로를 더 많이 거치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제조업의 이윤은 적어지고 유통업의 이윤은 많아진다.

2025 화제의 모의고사 2주L2 6번

6. 다음 글의 ㉠과 ㉡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마르크스가 사용한 '프롤레타리아'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 계급을 가리킨다. 그에 따르면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에는 (㉠). 자본가는 생산 수단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들여 상품을 생산·판매해 잉여가치를 획득하고, 생산 수단이 없는 노동자는 임금만을 받으며 실제 노동 성과에 비해 착취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점점 더 빈곤해지고,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스스로의 계급적 처지를 자각하게 된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했다.

마르크스 이론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역사 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생산력은 크게 향상되지만, 임금 노동자는 잉여가치를 빼앗기는 구조에 묶여 빈곤과 소외를 겪는다. 이때 (㉡),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 '공산당 선언' 등에서 제시된다. 즉 프롤레타리아가 자본주의 내부 모순을 폭로하고,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화하는 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출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 ㉠ ㉠: 생산 효율성에 있어 본질적 대립이 존재한다
㉡: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투쟁을 통해 의식을 혁명적으로 고양하고
- ㉠ ㉠: 생산 수단 소유 여부에 따른 본질적 대립이 존재한다
㉡: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투쟁을 통해 의식을 혁명적으로 고양하고
- ㉠ ㉠: 생산 수단 소유 여부에 따른 본질적 대립이 존재한다
㉡: 자본가와 노동자의 협력을 통해 기존 체제하에서 생산 수단을 공유하고
- ㉠ ㉠: 생산 효율성에 있어 본질적 대립이 존재한다
㉡: 자본가와 노동자의 협력을 통해 기존 체제하에서 생산 수단을 공유하고

지방직 국어 14번

14.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든 기호에는 정보성, 즉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정보성은 기호가 가진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기호에는 정보성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지는 것도 있다. 즉 기호는 정보성만 가진 기호와 정보성도 가진 의사소통적 기호로 구분된다. 가령 개나리가 피는 것은 봄이 왔다는 신호이고 낙엽이 지는 것은 가을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절을 알리기 위해 개나리가 피고 낙엽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적 기호들은 의사소통적 기호로 볼 수 없다. 개인의 지문이나 필체 역시 사람을 식별하는 기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문과 필체가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은 정보성을 가진 기호일 뿐이다. 코넬 독일의 소설에서 설록 홈스는 상대의 손톱, 코트의 소매, 표정 등을 근거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성격을 추리해 낸다. 홈스에게는 이런 것들이 모두 정보를 제공하는 기호들이다. 그러나 이들을 의사소통적 기호라고는 할 수 없다. 반면 인간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기호인 봉화, 교통 신호등, 모스 부호 등은 정보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명백히 가진다. 모든 기호를 통틀어 인간의 언어는 가장 복잡하고 체계적인 관습적 기호이며 의사소통적 기호이다.

- ① 전쟁 중에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는 관습적 기호이다.
- ② 일기예보에서 흐린 날씨를 표시하는 구름 모양의 아이콘은 자연적 기호이다.
- ③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얼굴색은 정보성만을 가진 기호이다.
- ④ 이웃 마을과 구별하기 위해 마을의 명칭을 본떠 만든 상징탑은 의사소통적 기호이다.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45회 2번

2. 다음 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장은?

어떤 사람이 러시아 여행을 가려는데 러시아어를 전혀 모른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특별한 그림책을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 책에는 언어적 표현이 없고 오직 그림만 들어 있다. 그는 그 책에 있는 사물의 그림을 보여줘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빵이 필요하다면 상점에서 빵 그림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 책에는 다양한 빵 그림뿐 아니라 여행할 때 필요한 것들의 그림이 빠짐없이 담겨 있다. 과연 이 여행자는 러시아 여행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가 자전거 상점에 가서 자전거 그림을 보여 준다고 해보자. 자전거 그림을 보여 주는 게 자전거를 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아니면 자전거를 팔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결국 그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분명하게 전달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 ①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확정되기 어렵다.
- ② 약속에 의해서도 기호의 의미는 결정될 수 없다.
- ③ 의미가 확정된 표현 없이도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 ④ 한 사물에 대한 그림은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지방직 국어 14번

14.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든 기호에는 정보성, 즉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정보성은 기호가 가진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기호에는 정보성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지는 것도 있다. 즉 기호는 정보성만 가진 기호와 정보성도 가진 의사소통적 기호로 구분된다. 가령 개나리가 피는 것은 봄이 왔다는 신호이고 낙엽이 지는 것은 가을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절을 알리기 위해 개나리가 피고 낙엽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적 기호들은 의사소통적 기호로 볼 수 없다. 개인의 지문이나 필체 역시 사람을 식별하는 기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문과 필체가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은 정보성을 가진 기호일 뿐이다. 코넬 독일의 소설에서 설록 홈스는 상대의 손톱, 코트의 소매, 표정 등을 근거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성격을 추리해 낸다. 홈스에게는 이런 것들이 모두 정보를 제공하는 기호들이다. 그러나 이들을 의사소통적 기호라고는 할 수 없다. 반면 인간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기호인 봉화, 교통 신호등, 모스 부호 등은 정보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명백히 가진다. 모든 기호를 통틀어 인간의 언어는 가장 복잡하고 체계적인 관습적 기호이며 의사소통적 기호이다.

- ① 전쟁 중에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는 관습적 기호이다.
- ② 일기예보에서 흐린 날씨를 표시하는 구름 모양의 아이콘은 자연적 기호이다.
- ③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얼굴색은 정보성만을 가진 기호이다.
- ④ 이웃 마을과 구별하기 위해 마을의 명칭을 본떠 만든 상징탑은 의사소통적 기호이다.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54회 15번

[15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종교학자인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상징과 기호를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기호가 된 사물은 단일한 의미만을 경험 주체들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상징으로 기능하는 사물이 가지는 의미는 한 가지만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사물의 단일한 의미만을 정확한 지식으로 '학습'하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 겹쳐진 사물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경우 사물은 '의미들의 더미'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다양한 의미들을 통해 그 사물의 현존을 ㉡ 받아들인다.

한편, 기호적 사물은 실은 비현실적인 사물 인식의 산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을 의도적으로 어떤 틀에 맞추어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무릇 사물은 그것을 경험하는 삶의 주체가 자기 나름의 실존적 맥락에서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에게 현존하는 사물이 된다. 그러므로 사물이 기호인 경우에는 그것이 드러내는 단일한 의미에 ㉢ 따르게 되지만, 사물이 상징인 경우에는 그것이 드러내는 다양한 의미를 끊임없이 ㉣ 풀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15. 윗글의 내용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 ① 상징으로 기능하는 사물은 기호가 된 사물과 달리 여러 의미를 지닐 수 있다.
- ② 사물의 현존에 대한 승인은 경험적인 사물 인식의 산물이다.
- ③ 사물이 상징인 경우 그것은 비현실적인 사물 인식의 산물이다.
- ④ 사물은 삶의 주체가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승인할 때 현존할 수 있게 된다.

지문 제재 적중!

지방직 국어 15번

15. 다음 글의 (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자아 개념이란 자신에 대한 주관적 견해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성격, 태도, 느낌 등을 모두 포괄한다. 자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타인에게서 듣게 되는 나와 관련된 메시지를 들 수 있다. 물론 타인 중에는 자신이 느끼기에 나에게 관련이 적은 사람도 있고 중요한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너의 글은 인상적이야.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다면 그 평가는 자아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서는 부모, 친구, 선생님 등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가)의 말은 기억에 오래 남기 마련이다.

한편,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자아를 설명하는 개념 중에는 (나)라는 것도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타인을 모범으로 삼아 따라 하거나 타인의 훈육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기보다는 타인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에 대한 타인의 판단을 추정한다. 그러한 추정을 통해 자기에게 생겨난 감정을 알아 가는 과정에서 성숙한 자아를 형성해 나간다.

(가)

- ① 관련이 적은 타인
- ② 중요한 타인
- ③ 관련이 적은 타인
- ④ 중요한 타인

(나)

- 거울에 비친 자아
- 모범적인 타인을 따르는 자아
- 모범적인 타인을 따르는 자아
- 거울에 비친 자아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32회 10번

10. 다음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인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그려 낸 작품들이 있다. 이 작품에서의 시인은 주로 자신의 자아를 성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시인은 자아 성찰을 위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듯 스스로를 대상화해야 한다. 이때 ‘나’는 ‘거울에 비친 나’와 ‘거울을 바라보는 나’로 분열한다. 전자는 대상화된 자아이므로 ‘객체화된 자아’에, 후자는 대상화된 자아를 바라보는 자아로 ‘주체로서의 자아’에 해당한다.

그런데 주체로서의 자아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 현실의 모습과 같지 않다. 자아를 성찰하면서 두 자아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된다. 이 괴리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객체화된 자아에 대해 부정적 정서와 태도를 갖게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정하면서 화해하기도 한다. 이는 시인이 지향했던 이상적 자아를 추구할 수 있게 해 준다.

- ① 시인은 자아 성찰을 위해 실제 거울에 있는 나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 ② ‘거울에 비친 나’가 ‘거울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나’ 사이의 괴리가 생기게 된 것이다.
- ③ 주체로서의 자아가 자아 성찰을 하면서 ‘거울에 비친 나’는 ‘거울을 바라보는 나’와 달리 긍정적 정서와 태도를 갖게 되었다.
- ④ ‘거울을 바라보는 나’는 자아 성찰하면서 얻은 괴리를 극복한다면 시인이 지향했던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문 제재 적중!

지방직 국어 15번

15. 다음 글의 (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자아 개념이란 자신에 대한 주관적 견해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성격, 태도, 느낌 등을 모두 포괄한다. 자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타인에게서 듣게 되는 나와 관련된 메시지를 들 수 있다. 물론 타인 중에는 자신이 느끼기에 나에게 관련이 적은 사람도 있고 중요한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너의 글은 인상적이야.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다면 그 평가는 자아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서는 부모, 친구, 선생님 등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가)의 말은 기억에 오래 남기 마련이다.

한편,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자아를 설명하는 개념 중에는 (나)라는 것도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타인을 모범으로 삼아 따라 하거나 타인의 훈육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기보다는 타인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에 대한 타인의 판단을 추정한다. 그러한 추정을 통해 자기에게 생겨난 감정을 알아 가는 과정에서 성숙한 자아를 형성해 나간다.

(가)

- ① 관련이 적은 타인
- ② 중요한 타인
- ③ 관련이 적은 타인
- ④ 중요한 타인

(나)

- 거울에 비친 자아
- 모범적인 타인을 따르는 자아
- 모범적인 타인을 따르는 자아
- 거울에 비친 자아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54회 15번

13. 다음 글의 ‘우구를리앙’이 가진 견해로 적절한 것은?

프랑스의 정신의학자 우구를리앙은 이전까지 통용되던 ‘자아’의 개념을 수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아라고 하면 자기 자신만의 것으로서 변하지 않고 고정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우구를리앙은 ‘진정한 심리학적 사실은 한 개인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으며,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속적인 창조 행위의 결과’를 자아라고 표현하였다.

우구를리앙은 인간을 타인과의 만남에 반드시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는 타인을 모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개인의 심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욕망이라고 보았는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방적 욕망을 모아둔 것을 우리의 자아라고 여겼다. 이때 인간의 욕망은 계속해서 생성되고 변형되며, 그렇기 때문에 욕망으로 형성되는 자아 또한 가변적인 존재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출생 시의 자아가 유지된다는 전통적 심리학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준다.

자아가 계속 변한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하나의 자아만 존재한다는 일반적 생각도 수정한다. 타인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자아 또한 매일 새롭게 형성되기에, 우구를리앙은 한 사람에게 여러 자아가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 ① 모방이 자아를 고정불변의 것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 ② 자아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생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 ③ 혼자만의 학습을 통해서도 자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④ 자아가 변화할 수는 있으나 한 개인에게는 하나의 자아만이 존재한다고 여겼다.

문제 유형 적중!

지방직 국어 16번

16. 다음 글의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은?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식단을 조절하거나 근력 운동을 한다.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따라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 ① 건강한 사람은 모두 식단을 조절한다.
- ②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 ③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 중에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
- ④ 식단 조절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 중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4회 20번

20. 다음 글의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은?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오렌지와 딸기를 좋아한다. 오렌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복숭아를 좋아한다. 따라서 수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다.

- ①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두 수박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수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오렌지를 좋아한다.
- ③ 복숭아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수박을 좋아한다.
- ④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수박을 좋아한다.

지방직 국어 17번

17.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언어는 인간의 지각과 사고, 세계관 등을 결정해. 인간 사고의 내용과 구조는 언어에 의해 형성되며, 이 때문에 동일한 언어를 쓰는 민족은 그 언어에 의해 형성된 공통의 세계관을 갖게 되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반대야.

을: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해서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해. 따라서 사고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낳지.

병: 그렇긴 하지. 사고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구사하는 언어의 수준이 높아. 하지만 나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동의해. 남미의 어떤 부족은 방향을 표현할 때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니라 '북서쪽'과 같이 절대 방위로 표현하는데,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공간 감각은 이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거든.

갑: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해. 어떤 언어의 화자가 자기 언어의 색채어에 맞추어 색깔을 구별하는 것을 그 사례로 들 수 있어. 이런 점에서 언어가 없다면 인식하고 사고할 수 없다는 말도 성립해.

을: 언어가 미숙한 유아라든지 언어가 없는 동물들도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사고하고 판단하잖아. 이걸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이지.

병: 나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한다고 생각해.

- ① 언어와 사고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에 대해 갑과 을은 동의하지 않지만 병은 동의한다.
- ②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갑은 동의하지만 을은 동의하지 않는다.
- ③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점에 대해 갑과 병은 동의한다.
- ④ 사고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낳는다는 점에 대해 을과 병은 동의한다.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62회 3번

3. (가)의 논지에 대한 (나)의 태도로 옳은 것은?

(가) 사피어에 의하면 우리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살고 있으며, 언어가 노출시키고 분절시켜 놓은 세계를 경험한다. 워프 역시 사피어와 같은 관점에서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양식을 결정하고 주도한다고 말한다. 사피어와 워프의 말에 비추어 우리말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리말에서는 초록, 청색, 남색을 '푸르다'고 한다. '푸른 숲', '푸른 바다', '푸른 하늘' 등의 표현이 그러한 경우로, 우리는 이 다른 색들에 대한 우리는 숲, 바다, 하늘을 한 가지 색깔로 생각하게 된다.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는 것이다.

(나) 어떤 색깔에 해당하는 어휘가 없다고 그 색깔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해당 어휘가 없다고 인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밖에도, 우리가 분명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되 그 생각을 표현할 적당한 말을 갖고 있지 못할 뿐이거나 말을 잊어서 표현에 곤란을 느낄 뿐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문법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의 명사나 형용사에는 남성을 나타내는지 여성을 나타내는지를 변별해서 사용하도록 해 주는 문법적 장치가 있다. 이에 비해 우리말은 그러한 장치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성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들을 볼 때,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수 없다.

- 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 ② 언어와 사고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을 제시한다.
- ③ 인간의 사고는 보편적이므로 언어와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 ④ 언어가 사고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견해에 적극 찬성한다.

지문 제재 적중!

지방직 국어 17번

17.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언어는 인간의 지각과 사고, 세계관 등을 결정해. 인간 사고의 내용과 구조는 언어에 의해 형성되며, 이 때문에 동일한 언어를 쓰는 민족은 그 언어에 의해 형성된 공통의 세계관을 갖게 되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반대야.

을: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해서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해. 따라서 사고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낳지.

병: 그렇긴 하지. 사고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구사하는 언어의 수준이 높아. 하지만 나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동의해. 남미의 어떤 부족은 방향을 표현할 때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니라 '북서쪽'과 같이 절대 방위로 표현하는데,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공간 감각은 이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거든.

갑: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해. 어떤 언어의 화자가 자기 언어의 색채어에 맞추어 색깔을 구별하는 것을 그 사례로 들 수 있어. 이런 점에서 언어가 없다면 인식하고 사고할 수 없다는 말도 성립해.

을: 언어가 미숙한 유아라든지 언어가 없는 동물들도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사고하고 판단하잖아. 이걸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이지.

병: 나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한다고 생각해.

- ① 언어와 사고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에 대해 갑과 을은 동의하지 않지만 병은 동의한다.
- ②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갑은 동의하지만 을은 동의하지 않는다.
- ③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점에 대해 갑과 병은 동의한다.
- ④ 사고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낳는다는 점에 대해 을과 병은 동의한다.

2025 화제의 모의고사 3주L2 2번

2. 다음 글의 언어관과 관계 있는 것끼리 묶인 것은?

어떤 언어학자는 언어가 사고방식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특정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자연이나 문화 현상에 대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개념을 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인은 무지개를 7가지 색이라고 인식하는데, 이는 한국어 색채어로는 7가지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무지개를 3가지 색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색채어가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무지개는 200가지가 넘는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이 모든 색을 지칭할 수 있는 색채어가 있다면, 우리도 무지개의 모든 색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객관적인 세계라기보다는 언어라는 렌즈에 굴절된 주관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보 기>—

- ㄱ. 언어는 시대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뀌므로 변화한다.
- ㄴ. 언어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며 언어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 ㄷ. 인간은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해서 살고 있다.
- ㄹ. 사회는 언어 공동체로, 언어는 그 언어의 사용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주는 구실을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지문 제재 적중!

지방직 국어 18번

18. 다음 대화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갑: 친구에게 보내는 감사 메일에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건강해라.”라고 적었는데, 다른 친구가 그건 잘못된 표현 이니까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널리 쓰이는 표현인데 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을: 문법 규범에 어긋난 표현이 자주 쓰인다는 이유로 문법 규범 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돼. 문맥상 “건강해라.”는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의미를 지니는데 건강한 상태를 명령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형용사의 명령형은 문법 규범에 어긋난 거니까 사용하면 안 돼. 마찬가지로 어휘도 사람들이 자주 쓴다고 해서 비표준어가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갑: 문법 규범에 맞게 쓰거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어야 하는 것은 옳지만, 문법 규범에 맞지 않거나 비표준어라고 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문법 규범이나 표준어는 공통의 언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된 것일 뿐이거든. “건강해라.”는 언중에게 널리 쓰인다는 점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어.

가. ‘쓰여지다’, ‘잊혀지다’와 같은 이중 피동은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는 표현이지만 문법 규범에 맞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갑과 을의 입장을 모두 강화한다.

나. 명령문 “행복해라.”가 문법 규범에 맞지 않지만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써도 된다는 주장은 갑의 입장을 약화한다.

다. 언중이 비표준어이던 ‘맨날’을 자주 사용하는 현실에 따라 표준어 ‘만날’과 함께 ‘맨날’도 표준어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을의 입장을 약화한다.

- ① ㄷ
- ② 가, 나
- ③ 가, ㄷ
- ④ 가, 나, ㄷ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15회 13번

[13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말을 표현력이 더 풍부한 언어로 만들려면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중에서 어휘와 관련되는 것은 (가) 우선 어휘의 절대량을 늘리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조어 규칙 중 ㉠ 이미 있는 어휘를 결합하는 합성법이나, ‘-보, -쟁이’ 등의 접사를 이용하는 파생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외래어를 활용하여 어휘의 절대량을 늘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는 다량의 한자어가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한자어를 받아들여 우리식 한자음으로 읽었으며, ㉡ 한자어 명사나 부사에 접사 ‘-하다’를 붙여 동사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하다’, ‘다이내믹하다’처럼 영어의 형용사에 접사 ‘-하다’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한다.

또 우리말에 발달한 ㉢ 의성어나 의태어를 새로 만드는 것도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소설류에는 ‘나훈나훈’, ‘필릴리’ 등 기존 사전에 없는 상징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 일부는 개인이 만든 것일 수 있다. 이런 어휘들은 이후 사회적 공인을 얻으면 사전에 오를 수도 있다.

어휘의 절대량을 늘리는 일 못지않게 표현력을 위해 중요한 것이 기존 어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 방언이나 옛말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어촌 지역에서 주로 쓰이던 ‘하늬바람’이 시어에 자주 사용되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고, ‘가람, 뫌’ 등 옛말 어휘가 오늘날 인명, 상표명 등에 쓰이기도 한다. 이처럼 이미 우리말에 존재하던 어휘들이 새롭게 쓰이면서 우리말의 표현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도 한다.

13. 밑줄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옛말을 오늘날 인명, 상표명 등에 사용하여 어휘의 절대량을 늘리기도 한다.
- ② 최근에는 영어에 우리말 조어 규칙을 적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한다.
- ③ ‘먹보’와 ‘욕심쟁이’ 등은 파생법을 사용하여 어휘의 절대량을 늘린 사례에 해당한다.
- ④ 개인이 만든 어휘도 사회적 공인을 얻으면 사전에 오를 수 있다.

문제 유형 적중!

지방직 국어 19번

19. 다음 대화의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갑: 공무원은 공직자이고 공직자는 그 직책만으로 국가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야. 모든 공무원은 공인이니까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있어.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 그런 사명감을 가질 의무는 없지.
을: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죽는 것들이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잖아. 네가 “공무원이 아닌 모든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가).”가 참이어야 해.

- ① 몇몇 공인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다
- ② 모든 공무원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다
- ③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다
- ④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는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 아니다

2025 백일기도 모의고사 1회 5번

5. 다음 중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A: 병이 미술관에 가지 않는다면, 갑과 을은 미술관에 갈 거야.
B: 을은 미술관에 가지 않았어.
A: 그럼 정은 미술관에 가겠네.
B: 너도 (㉠)이라는 걸 알고 있구나?

- ① 병이 미술관에 가지 않아야만 정이 미술관에 갈 것
- ② 정이 미술관에 갈 때에만 병이 미술관에 갈 것
- ③ 을이 미술관에 가면 정도 미술관에 갈 것
- ④ 갑이 미술관에 가면 을도 미술관에 갈 것

문제 유형 + 지문 제재 적중!

지방직 국어 20번

20. 다음 글의 논지를 약화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이 지닌 대부분의 지적 능력을 상회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작동하는 기계 장치를 ‘인공일반지능’이라고 부른다. 이론적으로 인공일반지능은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기능을 전부 갖게 될 것이다. 인공일반지능의 등장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이 허용된다면 머지않아 인공일반지능은 개발된다. 이로 인해, 인공일반지능은 대부분의 직업 영역에서 인간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소외감을 느끼으로써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다. 또한 인공일반지능이 개발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지구상에서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가 아니게 된다. 이는 인간이 지닌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론적 지위, 즉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므로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은 허용될 수 없다.

- ① 인공일반지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 ② 인공지능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H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개발 연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어 사람들이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 ④ 유관 학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5 화제의 모의고사 6주니 6번

6. 다음 글의 ㉠과 ㉡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AI 기술 개발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 **정보 분석, 자동화 솔루션, 각종 AI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업무 효율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 **전통 제조업 등 일자리 대체가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게다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① AI 자동화 솔루션 도입으로 제조 공정 비용이 감소하여 전통 제조업이 활성화 되었다면, ㉠은 약화된다.
- ② AI 기반 분석으로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면, ㉠은 강화된다.
- ③ AI 산업 확대로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AI 연구원 채용이 급증한다면, ㉡은 강화된다.
- ④ 정책 시행 후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음에도 데이터 유출 위험이 소폭 증가하였다면, ㉡은 약화된다.